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개관 후 이모저모

EXHIBITION

2016 / 04 / 05

채연

수원시 첫 미술관, 대중 위해 차린 '미술 밥상'
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개관 후 이모저모

캐롤 A. 퓨어맨 <내년 여름> 레진에 유채 2012

2015년 말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다양한 국공립 및 사립미술관의 개관 소식이 연일 화제다. 지난해에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, 디뮤지엄이 개관했으며 올해는 플랫폼-엘컴템포러리아트(4월), 청주시립미술관(7월)이 각각 개관 예정이다. Art는 지난해 10월 8일에 문을 열며 '개관 바람'의 첫 테이프를 끊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을 찾았다.

미술관은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수원화성행궁 옆에 위치해 있다. 서울에서 차로 1시간~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멀지 않은 거리다. 총 5개의 전시실과 복도 공간에 위치한 2개의 전시홀, 2개의 교육실, 카페, 도서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. 미술관 건물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해 수원시에 기부했다.

이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 '아이파크' 명칭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. 시민단체, 지역 미술가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개관 직전인 5월까지도 논란을 빚었으나, 시의회에서 이 사안을 타결하며 결국 미술관 명칭은 확정됐다. 미술관은 국공립미술관이라는 정체성에 걸맞은 역할을 다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선언했다. 전승보 전시감독은 개관 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문화 콘텐츠 생산의 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. 실제로 미술관은 개관전 <수원 지금 우리들>(2015)전에서 수원 지역 출신의 청년부터 원로까지 작가 114명의 작품 400여 점을 소개했다.

마크 데니스 <세 명의 유대인들이 바 안으로 들어가다> 리넨에 유채 2014

지난 3월 8일 기자가 방문한 미술관에서는 2층에 'SU-WON ART HISTORY'라는 특별 전시공간을 마련해 '수원 미술사'를 소개하고 있었다. 벽면의 타임라인에서는 1896년 나혜석 출생을 시작점으로 잡았다. 수원사진가협회 수원지부 창립(1955), 한국미술협회 수원지구회 창립(1964) 등 수원에 근거지를 둔 협회 및 모임의 창립에서부터 수원미술전시관의 주요 국제교류 전시 및 국제미술평론가협회(AICA) 학술대회 개최 등을 주요 행사로 기록했다. 대안공간눈(2005) 행궁재(2013) 해움미술관(2014) 등 지역 미술 공간의 조성도 주목했다.

실제 전시는 어땠을까? 제1, 2, 4전시실에서 열린 <하이퍼리얼리즘: 보는 것, 보이는 것, 보여지는 것>(2015. 12. 30~3. 20)전은 극사실주의 작가 11명의 정교한 묘사가 돋보이는 회화 조각 설치 등 작품 90여 점을 전시했다. 하이퍼리얼리즘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배제하고, 시각적 매력으로 어필하는 전시였다. 버락 오바마, 스티브 잡스 등 유명 인사의

두상을 극사실적으로 묘사한 아담 빈의 조각 등이 많은 인기를 끌었다는 후문이다.

<하이퍼리얼리즘: 보는 것, 보이는 것, 보여지는 것> 전시 전경 2015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

미술관은 4월 독일 프라이브루크 아우구스티너미술관 소장품전 <블랙 포레스트>를 개최할 예정이다. 수원시와 독일 프라이브루크시 간의 국제자매도시 체결(2016. 3)을 기념하며 열리는 행사다. 그림형제의 동화 <헨젤과 그레텔>의 배경이 되기도 한 독일 남서부 지방의 산악 지역을 주제로 하여 19세기 및 20세기 회화 48점을 선보인다. 같은 달 나혜석 탄생 120주년 기념전도 예정돼 있다. 나혜석 유족이 미술관에 기증한 <자화상> <김우영 초상>과 함께 나혜석 문학 관련 자료 등을 함께 선보인다.